



[5G 넥스트 스텝]
커넥티드카·AR·VR...
이동사 킬러콘텐츠가
5G 판도 좌우
02



Economy

코스피	2272.81 (0.00)	코스닥	808.89 (0.00)
금리 (우대예금)	2.10 (+0.01)	환율 (USD/원)	1115.90 (-7.70) (6일)

금융에도 소확행... '26주 펀돈적금' 등 짠테크 열풍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카카오뱅크〉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도 국민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원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은산분리’ 족쇄 풀릴까? 최종구 vs 참여연대 맞짱

금융위, 이달중 규제혁신 점검회의

이달 중 열릴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될 지 기대감이 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의 지분 보유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관련 법안의 처리는 2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주력자를 내세운 '마이니'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취소됐던 부처 통합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달 중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정치권 역시 오는 11일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할 지 여부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 지분도 10%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의 지분율이 10%에 그친 것도 그래서다. KT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지분율 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의 증자가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케이뱅크는 영입이 잘 될수록 자본확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카카오뱅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가지고 증자에 적극 나서면서 자본 걱정은 덜었지만 임시방편이긴 마찬가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케이뱅크도 금융주력자를 내세우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IT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금융사의 모바일 채널로 전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1 증액투자·AI로 재미 더한 '26주적금'에 24만명 가입

카카오뱅크, 젊은층 겨냥 소액·증액·단기에 초점 캐릭터 활용·SNS공유도 하나은행, 짠테크+AI 접목 '오늘은 얼마나? 적금' 선포

최근 펀돈을 활용한 '짠테크'가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특히 소액투자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짠 테크란 '짠돌이'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적은 돈을 꾸준히 모아 목돈을 만드는 재테크를 의미한다. 난생처음 재테크에 도전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생활 속 '펀돈'을 활용해 저축하는 투자 방식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26주 적금'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26주적금 상품의 가입자는 지난 6일 기준 24만명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적금 가입자가 1000원, 2000원, 3000원 중 하나를 첫 주 납부금액으로 선택하고 매주 그 초기 투자 금액만큼 증액해 적

10원짜리 동전을 흔히 펀돈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단돈 '1원'만 모자라도 지하철을 탈 수 없다. 담뱃값이나 커피값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3000원씩 매일 저금해 연 5% 복리로 은행에 넣으면 30여 년 뒤 1억원이 된다. 세계적 갑부인 워런 버핏은 이런 훈

금하는 순차적금 방식이다. 예를들어 최초 입금금액을 1000원으로 설정하고 증액 저축시 6개월 원금은 35만 1000원에 이자 1275원, 최초 입금액 3000원으로 설정하고 증액 저축시 6개월 원금 105만 3000원에 이자 3827원이 합쳐진다.

이처럼 26주 적금 상품은 만기까지 적금을 완료해도 돌려받는 수익은 비교적 높지 않다. 금리도 연 1.8%로 높지 않은 편.

그럼에도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펀돈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층을 겨냥한 짠테크와 카카오(KA KAO) 캐릭터를 선택, 적금 현황을 SNS 공유 등 '펀(Fun)테크'가 더해졌다는 특이점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을 들고 있는 배민정(23) 씨는 “26주 적금은 저축 부담이 적어 학생도 아르바이트비용이나 용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매주 소액을 모아 6개월 후 1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든지 여행 비용을 모으는데 아주 용이하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커피 한 잔 값

수를 던졌다. “100달러를 버는 것보다 1달러를 먼저 아껴라.” 불황의 시대에 '펀돈의 경제학'이 관심사가 됐다. 펀돈 적금, 용돈버는 앱이 알뜰족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밑천으로 떠올랐다.

1천원씩 증액		3천원씩 증액	
만기 예상원금	351,000원	만기 예상원금	1,053,000원
1주차 입금액	1,000원	1주차 입금액	3,000원
2주차 입금액	2,000원	2주차 입금액	6,000원
3주차 입금액	3,000원	3주차 입금액	9,000원
...
26주차 입금액	26,000원	26주차 입금액	78,000원
만기 예상이자	(세전) 1,275원	만기 예상이자	(세전) 3,827원
비과세종합저축	합도조회	비과세종합저축	합도조회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은 1000·2000·3000원 중 하나를 선택해 초기 투자금액을 저축하고, 그 금액만큼 증액을 해서 26번 입금하는 순차 적금 방식의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보다 싼 금액으로 여행 등 작은 목표를 세워두고 저축하는 등 소확행의 따른 저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적금의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 등으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기가 26주 저금은 6개월로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적다는 점에서 부담되지 않는 제테크라는 점이 매력이다. 또 매주 납입을 하면 캐릭터 스탬프가 찍히는 재미, 그리고 이런 화면들을 소셜 메시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얻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타 은행들도 비슷한 취지의 상품을 내놓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 짠테크와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인 하이(HAI)뱅크의 편의성을 합친 '오늘은 얼마나? 적금'을 출시했다. 커피나 군것질, 담배 등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아껴 매일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적금 상품이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

으로 월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루 적립 한도 1000원 이상 5만 원까지 매일 적립할 수 있다.

'오늘은 얼마나? 알람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일마다 1회씩 "목표를 위해 얼마나 저축하시겠어요?"라는 저축격려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보낸 일일 저축격려 문자메시지에 '적금 별칭'과 '저축액'을 답장으로 보냄으로써 적금의 이체가 바로 완료되는 구조다.

신한은행도 지난 2016년 하루 3만원·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입금하고 한 달에 1회 돌려받는 입출금 통장 '한달애(愛) 저금통' 상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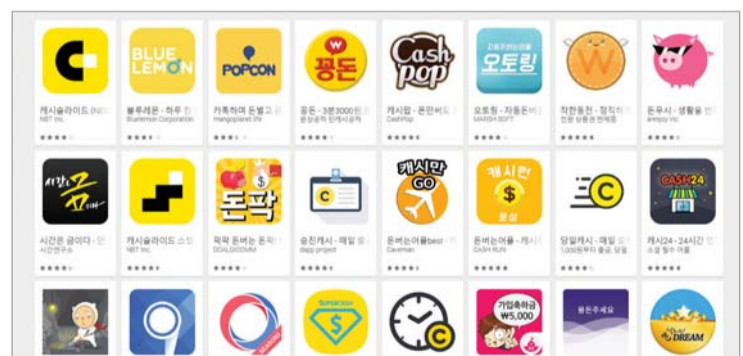
우리은행은 스마트폰 전용 '위비 짠테크 적금'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52주 짠플랜'은 미리 지정한 요일에 최초 이체금액을 적립하고 매주 1000원씩 자동 증액해 적립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2 스마트폰 앱만 사용해도 돈 번다

앱으로 돈버는 앱테크족 증가 걷기·퀴즈풀기 등 수백 가지

'짠테크'족이 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돈을 버는 앱테크(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를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펀돈을 벌 수 있어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인기다. 소비내역 평가하기, 퀴즈 풀기, 걷기, 광고 시청 등 종류가 다양하며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돈 버는 앱'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앱이 등장한다.

앱테크 관련 커뮤니티에선 돈 벌기 좋은 앱을 추천하거나 후기를 공유하고 앱테크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개하는 등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돈 버는 앱'을 검색한 화면. /구서윤 기자

◆생활 금융 플랫폼 '핀크'

핀크는 횡수 제한과 수수료 없이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수입·지출 분석 등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이자처럼 핀크계좌 충전금액에 대해 연 1.5%의 캐시백이 제공되며 하나은행 계좌 보유자는 앱 내에서 간편하게 핀크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또 'AI핀고' 소비평가를 하면 평가 1건당 1원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10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소비평가를 연속으로 7일 할 경우 10원, 한 달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500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퀴즈 풀고 돈 버는 '잼라이브'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운

영하는 실시간 퀴즈쇼 앱이다. 매일 진행되는 퀴즈 라이브쇼를 통해 상금을 얻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진행자가 등장해 문제를 출제한다. 채팅창에서는 실시간 대화가 이뤄진다. 12문제를 모두 맞춘 최종 우승자들이 상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일정 금액을 채우면 출금할 수 있다.

◆걷는 만큼 돈 버는 '캐시워크' 사용자 걸음 수에 비례해 캐시로 보상하는 만보기 앱으로 앱을 설치하고 걷기만 하면 자동으로 100걸음 당 1원씩, 하루 최대 1만 걸음(100원)까지 포인트 적립 가능하다.

◆잠금화면 밀어 돈 버는 '캐시슬라이드'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에 뜨는 광고를 옆으로 밀어 해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앱이다. 잠금화면을 좌우로 밀 때마다 광고에 따라 1~5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추천인 등록 시 500원 적립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